

사랑했기 때문에



이선희

목차

1장. 시작된 그리움

-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았어
- 네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어
- 텅 빈 침대에 누웠어
-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
-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어
-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어
- 울지 않으려 노력했어
- 결국 소리 내어 울었어
-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2장. 흔적을 쫓는 발걸음

- 네가 좋아했던 골목을 걸었어
- 같이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어
- 카페에서 네 자리에 앉았어
- 같이 찍었던 사진을 봤어
- 환하게 웃던 네가 좋았어
-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했어
- 그때의 향수를 느꼈어
- 사랑한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 어디선가 널 찾고 있었어
- 네 행복을 빌었어
- 어쩌면 우린 다시 만날까 상상했어

3장. 남겨진 사랑

- 이제는 홀로 걸어야 했어
- 덩덤히 네 소식을 들었어
- 괜찮은 척 웃어 보였어
-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어
- 가끔 널 미워하기도 했어
- 더 잘해주지 못해 후회했어
- 어쩌면 다 내 잘못이었을까
-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어
- 영원히 기억할게, 내 사랑
- 이젠 안녕, 내 전부였던 너

시작된 그리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았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았어
익숙한 공기마저 낯설게 스며들었어
무심코 흥얼거린 노랫말에 네가 있었어

즐거 듣지 않던 이별 노래에
팬스레 먹먹해지고 말았어
모든 가사가 꼭 우리 이야기 같았어

함께 걷던 길 모퉁이마다
네 웃음소리가 자꾸만 들렸어
텅 빈 옆자리가 더 시렸어

잊으려 애써봐도 소용없었어
여전히 내 마음은 널 향해 있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파했어

네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어

네가 없다는 사실이 문득 낯설었어
익숙한 길 위로 낯선 발걸음을 옮겼어
함께 걷던 시간들이 자꾸만 되감겼어

무심코 켜진 라디오에서 이별 노래가 흘렀어
같이 웃던 그 카페 앞을 멍하니 서성였어
우리 둘만 알던 비밀스러운 골목을 맴돌았어

손잡았던 온기,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웠어
새벽녘 뒤척이며 너의 얼굴을 찾아 헤맸어
아직도 네 흔적이 내 하루를 지배했어

잊으려 애쓸수록 더욱 선명해졌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너였어
그리움 속에 다시 너를 만나곤 했어

텅 빈 침대에 누웠어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웠어
네 온기 사라진 베개만 만졌어
익숙한 향기도 이젠 없었어

관심 없던 이별 노래를 들었어
가사 한 줄 한 줄 마음에 박혔어
함께 걷던 길을 또 떠올렸어

카페 창가에 앉아 너를 찾았어
어색한 웃음 짓던 나를 봤어
따뜻했던 손을 다시 잡았어

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났어
사랑했던 마음 여전히 남았어
그리움은 밤새 나를 울렸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

핸드폰을 말없이 만지작거렸어
아무 소식 없는 화면만 바라봤어
까만 액정 위로 너의 이름이 떠올랐어

듣지도 않던 이별 노래를 틀어놓았어
가슴 저린 멜로디에 눈물이 흐르려 했어
네게 주었던 모든 시간들이 아련했어

함께 걷던 거리, 발걸음마다 네가 있었어
작은 손 맞잡고 웃던 그 순간이 선명했어
차마 지울 수 없는 우리의 흔적을 더듬었어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사랑했기에 남겨진 이 아픈 그리움이었어
다시 너를 찾을 수 없는 혼자만의 밤이었어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어

관심도 없던 이별 노래가 문득 들려왔어
하루 종일 멍하니 널 그리워했어
이 모든 게 덧없는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어

함께 걷던 길 모퉁이, 햇살 가득했던 카페
네 웃음소리, 내 귓가에 아직 선명했어
아무것도 변치 않은 듯, 그대로였어

애써 다른 길을 걸어봐도 소용없었어
어느새 너의 이름만 되뇌었어
그리움이 열어질 줄 알았는데 더 깊어졌어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한 기억이었어
아직도 내 모든 세상은 온통 너였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사랑은 그대로였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어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을 보았어
듣지도 않던 슬픈 노래만 찾아 들었어

같이 걷던 길, 발걸음은 멈췄했어
네 흔적을 따라 자꾸만 돌아봤어

커피 한 잔에도 네 모습이 아른거렸어
사소한 농담 하나에도 눈물이 고였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너였어
아직도 내 마음은 너를 부르고 있었어

울지 않으려 노력했어

울지 않으려 정말 많이 노력했어
네가 떠난 뒤 처음으로 이별 노래들을 찾아 들었어
가사 한 줄 한 줄이 내 얘기 같아 밤새 뒤척였어

우리가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어
발걸음마다 네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
별 의미 없던 그 골목길도 이제는 아련했어

네 흔적 없는 곳이 없더라 다 추억이었어
따뜻했던 네 손길, 어설픈 농담까지 선명했어
시간은 흐르는데 내 맘은 멈춰있는 것만 같았어

그래서 자꾸만 널 그리워했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눈물 한 방울 떨궜어
아직 널 사랑하나 봐, 매일 밤 고백했어

결국 소리 내어 울었어

전엔 듣지 않던 이별 노래를 자꾸 들었어
멜로디마다 네 모습이 스며들었어
이젠 모든 가사가 내 얘기 같았어

우리가 걷던 그 길을 홀로 걸었어
발걸음마다 네 흔적이 아른거렸어
익숙한 풍경도 어딘가 낯설었어

별것 아닌 기억에도 목이 메었어
터져버린 울음은 멈출 수 없었어
결국 소리 내어 너를 불렀어

그리움은 밤새도록 깊어졌어
꿈속에서도 너를 찾아 헤맸어
사랑했던 만큼 아파했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네가 떠난 자리엔 빈 허공만 남았어
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어

듣지도 않던 슬픈 노래만 찾아 들었어
가사 한 줄 한 줄이 꼭 내 얘기 같았어
밤새도록 울어도 아침은 또 왔어

우리가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어
익숙한 향기라도 스칠까 멍하니 서성였어
모든 순간에 네 얼굴이 아른거렸어

잊으려 애써도 너는 더 선명해졌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봐
내 하루는 여전히 너로 가득했어

1

흔적을 쫓는 발걸음

흔적을 쫓는 발걸음

네가 좋아했던 골목을 걸었어

네가 좋아했던 그 골목을 걸었어
발끝마다 우리 흔적이 묻어났어
무심코 뱉은 숨에도 네 이름이 맴돌았어

낯설던 이별 노래를 자꾸 흥얼거렸어
나란히 걷던 어깨 온기가 사라진 자리
어느새 시린 바람만 스쳐 갔어

돌아보면 네 미소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멈춘 시간 속, 나 혼자만 저벅였어
눈 감으면 선명한 네 손길을 붙잡았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
텅 빈 마음에 너를 다시 새겼어
끝없이 걷고 또 걸었어

같이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어

같이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어
익숙한 멜로디에 멈칫했어
별생각 없이 흘러보냈던 노래가
이제는 그리움으로 차올랐어

관심도 없던 이별 노래들이
네 덕분에 마음에 박혔어
가사 한 줄 한 줄 곱씹으며
왠지 모르게 눈물 글썽였어

카페 창가 자리 비어있는 곳
함께 걷던 공원 길이 보였어
노래 따라 흘러가는 추억들
내 발걸음도 멈춰 세웠어

잊은 줄 알았던 네 흔적들이
다시 내 하루를 덮었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너를 찾고 있었어

카페에서 네 자리에 앉았어

어느 날 불쑥 그 문을 열었어
네가 늘 앉던 창가, 빈자리에 앉았어

따뜻한 향기 속에 네 웃음 맴도는 듯
식어가는 커피 잔에 못다 한 말 들렸어

홍얼대던 이별 노래 가사가 문득
모든 풍경이 스며들어 내 얘기 같았어

차가운 의자만이 네 온기를 품고
아직도 이 자리에서 널 기다리는 듯했어

같이 찍었던 사진을 봤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냈어
시간은 멈춰 그날의 네 모습
잊혀진 줄 알았던 네 웃음이
내 심장을 다시 흔들었어

너와 걷던 길 모퉁이마다 발자국 남았어
스쳐 지나던 바람마저 네 향기를 담았어
세상 모든 이별 노래가 내 얘기 같았어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어

작은 화면 속 우리가 마주 보고 웃었어
그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맴도는 듯했어
행복했던 기억이 왜 이리 슬픈 건지
끝내 답을 찾지 못했어

괜찮아질 거라 애써 되뇌었지만
거짓말이었어
사랑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맘을 온통 적셨어

환하게 웃던 네가 좋았어

우연히 들려온 슬픈 멜로디에 멈춰 섰어
네가 없으니 모든 이별 노래가 내 얘기 같았어

함께 걷던 길 모퉁이마다 네 웃음이 아른거렸어
환하게 웃던 그때의 네 모습이 자꾸만 선명했어

별 관심 없던 카페 창가에도 너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그 작은 기억들마저 소중해져 버린 내 마음이었어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어
잊으려 할수록 더 깊이 너를 다시 사랑했어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했어

문득 익숙한 멜로디에 멈춰 섰어
별 의미 없던 노랫말을 흥얼거렸어

발길 닿는 거리마다 널 떠올렸어
함께 나누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

작은 표정,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했어
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선명해졌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네 흔적들 속에 여전히 머물렀어

그때의 향수를 느꼈어

우연히 들은 멜로디에 가슴이 저렸어
너와 함께했던 순간들 떠올랐어

발길 닿는 곳마다 너의 잔향이 맴돌았어
스쳐 가는 바람에도 네 이름을 불렀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림자가 다시 찾아왔어
그 자리 그대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밤 깊도록 함께 듣던 노래를 혼자 들었어
그리움이란 이름의 향수를 온몸으로 느꼈어

사랑한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어느새 익숙해진 슬픈 노랫말을 흥얼거렸어
멜로디 따라 걷다 멈춘 곳, 네가 앉아있던 자리였어
괜찮다고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멈췄어

우연히 지나친 골목길, 따스했던 네 손 잡았던 기억
함께 웃던 카페 창가, 희미한 햇살이 아직 거기 있었어
모든 풍경 속에서 너를 찾아 헤매었어

사랑한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
낯선 슬픔에 잠겨 이 밤도 너를 그리워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미웠어

우리의 계절은 멈췄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
시간은 흐르는데 내 마음만 묶여 있었어
널 잊는다는 거짓말, 차마 할 수 없었어

어디선가 널 찾고 있었어

관심 없던 이별 노래를 자꾸 들었어
가사 한 줄 한 줄 네 얘기 같았어
팬히 흥얼거리다 눈물짓곤 했어

자주 걷던 그 길을 오늘도 걸었어
벤치에 앉아 네 이름을 불렀어
함께 웃던 시간들이 손짓했어

익숙한 뒷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어
혹시 너일까 설레며 돌아봤어
어딜 가든 네 모습 찾고 있었어

이젠 없다는 걸 머리론 알았어
하지만 마음은 아직 널 헤매고 있었어
언제쯤 이 그리움이 열어질까 물었어

네 행복을 빌었어

문득 슬픈 노랫 들곤 했어
예전엔 찾지도 않던 노랫말들이
꼭 우리 얘기 같아서 가만히 울었어

함께 걷던 거리를 다시 걸었어
발걸음마다 네 온기가 스며있었어
모든 풍경이 너를 품고 서 있었어

가슴 시리도록 네 행복을 빌었어
찢어진 마음 숨기고서 널 응원했어
아픈 기억마저 소중히 간직하려 했어

아직도 네 흔적이 내 안에 깊이 박혔어
계절이 바뀌어도 이 마음 그대로였어
그저 먼발치에서 너를 그리워했어

어쩌면 우리 다시 만날까 상상했어

갑자기 슬픈 노래를 흥얼거렸어
아무렇지 않게 네 얼굴 떠올렸어
한때는 무관심했던 이별 가사들
이제는 나를 닮은 것 같았어

함께 걸던 골목길을 다시 걸었어
발걸음마다 네 온기 느껴졌어
낮익은 카페 창가에 멍하니 앉았어
네가 앉았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어

어쩌면 우리 다시 만날까 상상했어
우연처럼 마주칠까 기대도 했어
그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했어

지나간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내 기억 속에 너는 또렷했어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하는 줄 알았어

2

남겨진 사랑

남겨진 사랑

이제는 홀로 걸어야 했어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
네가 없는 이 밤은 참 길었어
멜로디 없는 이별 노래만 찾아 들었어
가사마다 네 얼굴이 떠올랐어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어
발걸음마다 지난 추억을 밟았어
익숙한 풍경 속에 너만 없었어
시간이 멈춘 듯 서성였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약속들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어
괜찮은 척 웃으려 애썼어
눈물은 결국 흘러내렸어

이제는 정말 혼자여야 했어
네 손 놓친 자리가 아렸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 길 끝에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물었어

덤덤히 네 소식을 들었어

네 소식 덤덤히 들었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시큰거리는 가슴은 숨기지 못했어.
오래된 사진처럼 빛바랜 너를 다시 그렸어.

괜찮다 생각한 밤, 이별 노래를 듣고 말았어.
가사 한 줄 한 줄이 우리 얘기 같아서 울었어.
함께 걷던 길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어.

어느새 스며든 너의 흔적들이 선명해졌어.
식어버린 커피잔에 남은 온기처럼 희미했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보다고 생각했어.

잊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어.
네가 없는 계절 속에서도 꽃은 피어났어.
남겨진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았어.

괜찮은 척 웃어 보였어

헤어졌다는 말에 그저 웃어 보였어.
괜찮은 척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
늘 스쳐 듣던 이별 노래에 귀 기울였어.

무심코 걷던 길 위에서 너를 발견했어.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서 울었어.

잊으려 해도 자꾸만 더 선명해졌어.
어색한 웃음 뒤로 숨긴 눈물을 삼켰어.
나 홀로 남겨진 추억 속을 헤매고 있었어.

괜찮다는 거짓말이 매일 더 버거웠어.
가슴 한편엔 여전히 네가 살고 있었어.
그렇게 홀로 너를 지독하게 사랑했어.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어

헤어졌다는 말, 머리로는 알았어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너를 찾았어

걷던 거리, 스치는 향기에도 멈췄했어
듣지도 않던 이별 노래에 괜히 울컥했어

함께 웃던 카페 창가, 너의 자리를 바라봤어
모든 흔적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아른거렸어

애써 괜찮은 척 웃었지만, 마음은 아니었어
여전히 너의 이름 한 자에 가슴이 저려왔어

가끔 널 미워하기도 했어

괜찮아진 줄 알았어,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
어느새 네가 스며든 일상이었어, 온통
애써 외면했던 이별 노래가 내 이야기 같았어

우연히 지난 거리에서 네 모습이 보였어
함께 걸던 기억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
그때 우리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

잊으려 애쓸수록 선명해지는 너라서
가끔은 널 미워하기도 했어, 정말 힘들었어
내 안의 너를 도려낼 수 없어 아파했어

밤새도록 뒤척이며 너를 그리워했어
미움도 그리움도 결국 사랑의 조각이었어
결국 난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더 잘해주지 못해 후회했어

관심 없던 슬픈 노랫말에 귀 기울였어
무심코 따라 부르다 눈물이 흘렀어
너와 헤어진 후 자꾸만 그랬어

걷던 골목길 지나칠 때마다 네 모습 찾았어
함께 웃던 카페 창가엔 빈자리만 보였어
모든 풍경이 다 너를 불렀어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후회했어
사소한 투정마저 이해하지 못했어
내게 소중한 너였는데 몰랐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알았어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만 남았어
아직도 너를 많이 사랑했어

어쩌면 다 내 잘못이었을까

어느새 이별 노래에 귀 기울였어
무심코 지나던 멜로디에 네가 떠올랐어
모든 길목에서 널 그리워했어
갑자기 슬픔이 나를 감쌌어

함께 걸던 그 거리 위를 홀로 걸었어
발걸음마다 네 추억을 밟았어
카페 창가에 너의 미소를 보았어
희미해진 잔상만 붙잡았어

어쩌면 내 진심을 전하지 못했어
아니면 널 너무 쉽게 놓아버렸어
모든 순간이 후회로 남았어
다 내 잘못은 아니었을까 자책했어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졌어
밤새도록 널 그리고 또 그렸어
아직도 이 마음에 네가 살았어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어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어

전에는 듣지 않던 슬픈 노랫 노래 찾게 됐어
멜로디마다 스며든 지난날의 네가 있었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텅 빈 방을 맴돌았어

함께 걷던 골목 어귀 꽃잎이 지는 걸 봤어
그 향기 따라 발길 닿는 곳마다 네가 숨 쉬었어
마주 보며 웃던 카페 창가엔 비만 내렸어

시간은 흐르는데 그리움은 짙어져 갔어
잊으려 애쓸수록 선명해지는 추억을 붙잡았어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어, 내 모든 게 무너졌어

결국 모든 기억이 눈물 되어 흘러내렸어
내 전부였던 너를 보내며 홀로 밤을 지새웠어
이별이란 흉터 위에 시린 꽃처럼 남아버렸어

영원히 기억할게, 내 사랑

어느새 이별 노래에 귀 기울였어
함께 웃던 날들 그림처럼 떠올랐어
낯설었던 슬픈 멜로디가 날 스쳤어

같이 걷던 거리엔 네 발자국 남았어
손잡고 보았던 영화 장면은 그대로였어
모든 풍경 속에 네가 스며들었어

헤어진 뒤 몰랐던 습관까지 그리웠어
네가 좋아했던 커피 향에도 멈춰 섰어
시간은 흘러도 나는 그때 머물렀어

다시 돌아갈 수 없단 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너와의 모든 순간은 반짝였어
내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기억이었어

이젠 안녕, 내 전부였던 너

전혀 듣지 않던 이별 노래를 자꾸만 흥얼거렸어
네가 비운 자리, 낯선 고요가 가득했어.
밤마다 잠 못 들고 열은 한숨만 내뿜었어.

우연히 마주친 옛 골목에서 너를 찾아 헤맸어.
같이 웃던 카페 창가엔 이제 홀로 앉아 있었어.
수많은 장면들이 어제 일처럼 아른거렸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묶인 시간을 풀어야 했어.
내 전부였던 너에게, 이젠 안녕이라 말했어.

지워지지 않는 기억 속에 너는 여전히 살아있어.
가슴 한편 묻어둔 채, 오늘을 견뎌내고 있어.

사랑했기 때문에

저자: 이선희

출판사: 지혜의서가

발행일: 2026년 07월 04일

전자책 정가: 11,000원

ISBN: 발급 예정

저작권: © 2026 이선희. All rights reserved.

본 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및 편집 구성은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본 도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저자의 기획·검수·편집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